

자존감 바탕 내부 공감대 유도

[기획/세계문화유산시대를 연다] 2) 잠녀·잠녀문화 정체성 정립

등록 : 2013년 01월 17일 (목) 09:26:41 | 승인 : 2013년 01월 17일 (목) 09:28:53
최종수정 : 2013년 01월 17일 (목) 09:27:56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잠녀가 제주여성성을 상징하는 마이콘에서 제주문화를 상징하는 콘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진은 바다에서 물질하고 있는 잠녀들.

경제적 역할·특이성 등 제주문화 상징 콘텐츠로 잠녀 대부분 물질에 자부심…정체성 확립 기준

제주 잠녀·잠녀 문화는 처음 경제적 역할과 특이성으로 주목받았다. 다른 곳에는 없는, 제주 특유의 나잠 어업 형태로 1970년대 우리나라 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기 까지 했다. '산업역군'이란 타이틀도 이 때 얻었다.

그런 잠녀가 제주 여성성(性)을 상징하는 아이콘에서 지금은 제주 문화를 상징하는 콘텐츠로 가치 상승 중이다. 반면 제주 잠녀의 수는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

한때 3만 명을 내다봤던 제주 잠녀는 2011년 말 현재 4881명(여성 4876명·남성 5명)에 불과하다. 1967년 2만4268명에서 불과 6년만인 1973년 1만4657명으로 1만명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06년 5406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고 그 수는 꾸준히 작아졌다. 매년 100명 안팎의 잠녀가 바다를 떠난다. 여기에는 노령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별 잠녀수는 △30~39세 4명(0.1%) △40~49세 128명(2.6%) △50~59세 826명(16.9%) △60~69세 1658명(34.0%) △70세 이상이 2265명(46.4%)으로 현재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잠녀 10명 중 8명(80.3%)는 '할머니'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런 현실과 거리가 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잠수어업인' 소득향상과 조업환경 개선에 맞춰져 있다. 수산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진료비 및 안전 공제료 가입비 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유색잠수복 구입 등 잠녀의 문화적 가치를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아직껏 잠녀와 해녀, 잠수어업인 등 호칭 하나 제대로 통일하지 못했다.

'잠녀문화 세계화'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제주 잠녀·잠녀문화'의 정체성 정립부터 차근차근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2011년 7월 잠녀문화 전승 및 보전 위원회가 구성됐고 9월에는 제주잠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문화재청에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 선정 신청을 해 이듬해 1월 전국 61개 종목 안에 이름을 올렸는가 하면 '우선등재 추진 목록'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었다.

6월 구성된 제주 잠녀 세계화 태스크 포스팀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4개 국어로 제주잠녀 홍보자료가 만들어지고 잠녀생태박물관 조성 연구 용역이 착수(7월) 됐다. 8월에는 잠녀문화센터 실시 설계가 완료됐다.

9월 열린 WCC세계자연보전포럼 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에서 제주잠녀는 제주형 의제 중 하나로 세계의 이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잠수회를 대표하는 통합 잠녀 조직 구성, 발족하겠다는 계획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해녀박물관이 지난해 6~7월 해녀박물관 주변 50~80대의 하도리 해녀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이런 더딘 움직임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설문에 참여한 잠녀 중 42명, 37.5%가 '잠녀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했고, 28명(25%)은 '물질 작업이 대체로 부끄럽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11명(9.8%)에 그쳤다. 잠녀들이 무엇에 자부심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잠녀·잠녀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것은 다시 제주도를 아우르는 과역 잠녀 조직과 '내부 공감대 형성'이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기준을 채우는 일이 될 수 있다.